

2028 대입 개편 고려한 고교 선택은? 2025 고입 캘린더

최근 각 시·도교육청이 2025학년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중3은 2028 대입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첫 세대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향후 대입에 미칠 유불리를 고려해 고교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영재학교, 특목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전기 모집 고교, 특목고(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전국 단위 자사고·지역 단위 자사고) 등 2025학년 고입 일정을 월별로 정리했다.

취재 김원모 리포터 fasciner@naeil.com
자료 각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각 고등학교 홈페이지

표_ 2025 고교 유형별 신입생 모집 일정

구분	5월	8월	9~10월	11~12월	2025년 1월
원서 접수	영재학교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특성화고	
합격자 발표		영재학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자공고
추가 모집				전기고 미달교	후기고 미달교

5월

영재학교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영재를 대상으로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다. 서울과고, 경기과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대전과고, 대구과고, 광주과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전국에 8개교가 있다.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입시는 서류 평가·지필 평가·영재성 캠프 등 3단계 전형을 거친다. 세부 일정은 4월에 학교별로 입학 설명회를 열어 공개하며 대부분 5월 말~6월 초에 원서를 접수하고, 2단계 지필 평가는 7월 7일 동시에 치러진다.

8월

과학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계열의 특수 목적 고교이다. 전국 단위 모집인 영재학교와 달리 과학고는 광역 단위 모집으로, 소재지 시·도의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 한성과고, 세종과고, 경기북과고, 인천과고, 부산과고, 대전동신과고, 전남과고, 충북과고, 제주과고 등 전국에 총 20개교가 있다. 영재학교의 합격자 발표 이후 원서를 접수하므로 영재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전형은 학교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서류 평가와 면접 등 2단계로 진행된다.

9~10월

예술고·체육고

예술고는 예술인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 고교, 체육고는 체육인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 고교이다. 서울 예고, 서울체고, 국립국악고, 안양예고, 계원예고, 강원체고, 함평골프고 등 전국에 42개 학교가 있다. 학교별로 실기 시험 등 입시 전형이 다르므로 미리 입시 요강을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한다.

마이스터고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해 예비 장인(Young Meister)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목고이다. 서울로봇고, 수도전기공업고, 포항제철공업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원주의료고,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충북반도체고, 인천해사고, 여수석유화학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등 전국에 52개 학교가 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며 내신, 면접, 실기 등 학교마다 다른 전형으로 입시를 치른다.

TIP

2025학년 고입,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고교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특목고와 지역 단위 자사고의 일반전형 선발 인원 증가 가능성이다. 지난해 까지 특목고와 지역 단위 자사고는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했는데,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2025학년 입시부터는 미달된 사회통합전형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전국 단위 자사고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었던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는 올해부터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밖에 서울 지역 일반고의 경우 기존의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즉, 중학교 성적을 개인별 석차로 환산하지 않고 과목별 성취도로 평가해 배정 대상자를 선발한 후 학교별 배치 여건과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과 추첨으로 배정하게 된다. @

11~12월

특성화고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이다. 졸업 후 대부분 취업으로 이어지는 마이스터고와 달리,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입학 전형은 내신과 면접 위주이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외국어고·국제고

외국어를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 교인 외고는 대원외고, 한영외고, 청주외고, 경기외고, 미추홀외고, 전북외고, 울산외고, 제주외고 등 전국에 28개 고교가 있다.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 교인 국제고는 청심국제고, 동탄국제고, 부산국제고, 고양국제고, 인천국제고, 서울국제고, 세종국제고, 대구국제고 등 전국에 8개 학교가 있다. 외교·국제고 모두 시도 지역 단위 모집으로 거주지 지역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 4월부터 학교별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사고

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된 고교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라 한다. 모집 범위에 따라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소재지 시·도별로 지원하는 '지역 단위 자사고'로 나뉜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북일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총 10개교이다. 지역 단위 자사고는 지난해 외교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부일외고를 비롯해 휘문고, 중동고, 이화여고, 해운대고, 인천포스쿠고, 김천고 등 전국에 24개교가 있다. 자사고 역시 학교별로 입학 설명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